

민사소송법, 인권법

2008학년도 1 학기

4 학년 2 교시

※ 1. 정답 하나만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에 표기할 것. 2. 답안정정은 일절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할 것.	학 과		감독관	⑨
	학 번		성 명	

1과목	민 사 소 송 법 (1 ~ 35)
출제교수 : 방송대 문흥수	
출제범위 : 교재 및 TV강의 전 범위	

-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심급제도는 적정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공평이란 절차상 균등한 기회부여를 의미할 뿐이다.
 - ③ 지연된 정의는 부인된 정의이다.
 - ④ 소송경제의 이상은 다른 이상을 희생하더라도 달성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외의 분쟁해결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명령
 - ② 조정
 - ③ 화해
 - ④ 중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법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된다.
 - ②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은 유효하다.
 - ③ 1개 채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제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④ 법원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법관이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된다.
 - ② 법관이 증인의 친구일 경우 기피될 수 있다.
 - ③ 법관이 당사자와 동창인 경우 회피할 수 있다.
 - ④ 법원직원에 대하여는 제척사유가 준용되지 않는다.
-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사물관할 -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관할을 결정함.
 - ② 심급관할 - 1심, 2심, 3심 관할을 결정함.
 - ③ 전속관할 - 당사자의 합의로 어느 법원에 한하여 관할을 갖도록 함.
 - ④ 합의관할 -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결정함.
- “재판적”이란 무엇인가?
 - ① 토지관할의 발생근거가 되는 지점
 - ②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의 목록
 - ③ 법원의 호적
 - ④ 사건의 호적
- 다음 중 “재판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 ① 불법행위의 장소
 - ②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 ③ 당사자의 주소
 - ④ 법원의 소재지
-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 ② 의무 이행지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③ 우리 민법은 지참채무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④ 우리 민법은 추심채무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 ② 사망한 줄 모르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이행의 소송에서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원고가 된다.
 - ④ 이행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될 수는 없다.
-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공동소송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 ② 공통의 권리자들 가운데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공통의 분쟁원인자들 가운데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동종의 분쟁원인자들도 선정할 수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 ③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재판결론이 일치되어야 한다.
 -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재판결론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
-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우리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공동소송은 불가능하다.
 - ② 우리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공동소송은 가능하다.
 - ③ 우리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청구는 불가능하다.
 - ④ 우리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다.
-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타인간의 소송 중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 ②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 ③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 ④ 보조참가인에게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타인간에 소송계속 중 제3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다.
 - ② 삼면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다.
 - ③ 편면적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권리주장 참가와 사해방지 참가를 할 수 있다.
-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소송제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사건의 제기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 ②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보정이 불가능한 잘못이 있는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할 수 있다.
 - ③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 ④ 원고가 동일한 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취하가 된다.

민사소송법, 인권법

2009학년도 1 학기

4 학년 2 교시

※ 1. 정답 하나만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에 표기할 것. 2. 답안정정은 일절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할 것.	학 과		감독관	⑨
	학 번		성 명	

1과목	민 사 소 송 법 (1 ~ 35)
출제위원 : 방승대 문흥수	
출제범위 : 교재 및 TV강의 전 범위	

-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에 관한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 적정 --- 심급제도, 변호사 대리, 직접주의
 - 공평 ---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가집행선고 제도
 - 신속 --- 소액사건심판제도, 심리불속행 제도
 - 경제 --- 소송구조, 소의 병합제도
-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외의 분쟁해결방식이 **아닌** 것은?
 - 회생
 - 알선
 - 화해
 - 중재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은 금지된다.
 - 1개 채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소액사건으로 제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수는 없다.
-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호적정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은 비송사건이다.
 - 사법절차유지를 위해서 법원이 후견적으로 수행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공유물분할소송도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다.
 - 비송은 순수한 사적자치에 관한 소송이다.
-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관이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된다.
 - 법관이 증인의 친구일 경우 기피될 수 있다.
 - 제척,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소송의 주체중 법원에 관한 문제이다.
-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법정관할 - 법원이 정하는 관할을 의미함
 - 심급관할 - 1심, 2심, 3심 관할을 결정함
 - 변론관할 - 피고의 응소로 결정되는 관할을 의미함
 - 합의관할 -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결정함
-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사물관할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 사물관할은 1심에서만 문제된다.
 - 사물관할은 2심에서도 문제된다.
 - 사물관할은 3심에서도 문제된다.
-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토지관할과 재판적은 상관이 없다.
 - 관할권 유무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조사한다.
 - 관할위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재판적"이란 토지관할의 발생근거가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 의무 이행지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訴價)는 법원이 결정한다.
 - 우리 민법은 지참채무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교회나 사찰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 사망한 줄 모르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이행의 소송에서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원고가 된다.
 - 이행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될 수 있다.
-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공동소송인 중 법원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 공통의 권리자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선정할 수 있다.
 - 공통의 분쟁원인자들 가운데 선정할 수 없다.
 - 동종의 분쟁원인자들 가운데 선정할 수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재판결론이 일치되어야 한다.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재판결론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
-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우리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공동소송은 가능하다.
 - 우리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공동소송은 가능하다.
 - 우리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청구는 가능하다.
 - 우리 민사소송법상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다.
-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보조참가는 소송이 진행 중에도 할 수 있다.
 -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 보조참가 제도와 소송고지제도는 상관이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보조참가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
 - 편면적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해방지 참가를 할 수 있다.
- 다음 연결 중 **잘못된** 것은?
 - 주요사실 - 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
 - 간접사실 - 간접적으로 경험칙을 적용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 보조사실 - 주요사실의 인정이 부족할 때 필요한 보조적 사실
 - 직접증거 - 주요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민사소송법, 인 권 법

2010학년도 1 학기

4 학년 2 교시

※ 1. 정답 하나만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에 표기할 것. 2. 답안정정은 일절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할 것.	학 과		감독관	⑨
	학 번		성 명	

1과목	민 사 소 송 법 (1~35)
출제위원 : 방송대 박연철	
출제범위 : TV강의 전 범위, 교재 전 범위	

1. 우리 민사소송법의 역사와 연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우리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법체계를 계승발전 시킨 것이 아니라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법체계를 일본을 통하여 계수한 것이다.
- ② 독일 민사소송법은 그 연원을 로마민사소송법과 게르만민사소송법에서 찾을 수 있다.
- ③ 일제강점기 민사소송법은 1890년 제정된 일본민사소송법이 의용·실시된 것이고, 이 법은 해방후에도 미군정법령 또는 우리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왔다.
- ④ 우리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일자 1963년 7월 1일이며, 2002년 1월 26일 전면개정되었다.

2. 다음에서 맞지 않는 것은?

- ① 판결선고기일은 훈시규정이다.
- ②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방식, 증거조사의 방식은 강행규정이다.
- ③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는 절차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소송법규의 해석은 모든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합의부에서는 법관중의 1인이 재판장이 되며 나머지 2인은 합의부원 즉 배석판사가 된다.
- ② 합의부가 재판을 함에는 법관전원의 합의를 경유하여야 하며,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 ③ 수명법관은 합의부의 일원으로 재판장의 지정을 받아 변론준비절차, 화해권고, 법원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단독으로 소장심사 및 각하명령, 공시송달명령을 할 수 없다.

4.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소송물 가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
- ② 제 1심 민사사건 중 합의부의 관할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 ③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면 합의사건이다.
- ④ 주된 청구 외에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이들의 값은 청구목적의 값이 합산하지 아니한다.

5. 다음에서 보통재판적이 아닌 것은?

- ① 국가인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②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③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④ 피고의 주소지

6. 다음에서 그 개념을 틀리게 설명한 항목은?

- ① ‘당사자적격’은 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누가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 ② ‘당사자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한 상대방이나 법원으로부터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 ③ ‘당사자확정’은 현실적으로 계속된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문제이다.
- ④ ‘변론능력’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스스로가 소송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소송행위를 적법한 형식에 맞추어 유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7. 다음에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 ① 자연인
- ② 교육법상 각급 공·사립학교
-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8. 통상의 공동소송중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 ①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은 공동소송인별로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 ②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통일을 기한다.
- ④ 공동소송인은 자신의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9. 다음에서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닌 것은?

- ① 여러 명이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취소의 소
- ②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 ③ 여럿이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
- ④ 여러 명의 제3자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소송담당을 하는 경우

10.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 ① 공동소송인중 1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 ② 공동소송인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그 이익되는 여부를 막론하고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중단·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변론 및 증거조사는 공통된 기일에 실시한다.

11. 선정당사자제도에서 선정의 효과로서 맞는 것은? ①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권의 제한을 받는다. ②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사이의 내부특약을 위배한 선정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③ 선정자가 사망하면 선정당사자도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 미친다. 12.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 ② 대리과 친한 행위로서 널리 대리가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소송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3.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통설.판례는 참가적 효력설의 입장이다. ②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에만 미친다. ③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판결이유중의 사실인정이나 권리존부의 판단 또는 법적 효과의 판단에도 미친다. ④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보다 넓다. 1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3 당사자간의 대립·견제관계를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 제 67조가 준용된다. ② 2 당사자간의 소송행위는 다른 1인에게 불이익한 한 2 당사자간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1인에 관한 중단·중지 사유가 생기더라도 전 소송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기일은 3당사자 간에 공통하게 하여야 하며, 변론을 분리할 수 없다. 15. 피고의 경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피고의 경정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의 경정은 제 2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제1심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결정으로 허가여부의 재판을 한다. ④ 경정된 피고에 대한 소제기의 효과는 원래의 소장이 제출된 시기이다. 16. 다음에서 그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승계참가’란 소제기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민사소송법 제 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② ‘인수참가’란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여 참가하게 하는 경우이다. ③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참가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판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이다. ④ ‘공동소송참가’란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그 제 3자가 그러한 한쪽 당사자의 공동소송인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17.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②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③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④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으로서 위임인이 그 수임에 동의하는 사건 18.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송대리인은 특정소송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이외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도 가진다. ③ 복대리인의 선임은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④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은 특별수권사항이다. 19.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적극적인 소송요건은 당사자능력·소송능력·관할권·재판권 등을 들 수 있다. ②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제기시이다. ③ 소송물이 특정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④ 법정대리권도 소송요건이다. 20.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장래의 이행의 소는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기한부청구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을 불문한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청구권의 성질상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④ ‘미리 청구할 필요’의 요건은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때에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집행의 곤란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21. 다음 사안중 판례상 확인의 소로서의 이익을 인정받은 경우는? ① 소멸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 ②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 ③ 과거의 권리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현재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나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해결이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④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한 이자채무의 존부확인청구 22. 다음에서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② 임의대리인 ③ 당사자 ④ 법정대리인
---	---

1. 다음중 민사소송의 4대 이상(理想)중 신속이상(迅速理想)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2점)

- ① 중국판결선고기간에 대한 훈시규정을 두어 제1심의 경우 소제 기일로부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월 이내에 사건처리를 하도록 한 규정
- ② 소송지휘권에 의한 절차의 직권진행
- ③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
- ④ 쌍불취하제도

2. 1960년 4월 4일 제정공포된 우리 민사소송법의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법률 또는 법률체계가 아닌 것은? (2점)

- ① 영미법체계 ② 로마법체계
③ 게르만법체계 ④ 일본 민사소송법(1890년 제정)

3. 다음에서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점)

- ① 일정한 법원이 소송물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어느 피고에 대한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일반적, 원칙적으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이를 보통재판적이라 한다.
- ② 국가(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적은 서울특별시이다.
- ③ 피고가 자연인인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이 결정된다.
- ④ 피고가 국내의 각종법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등의 보통재판적은 제 1차적으로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결정된다.

4. 다음에서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은? (2점)

- ① 국회 ② 공·사립학교
③ 자연인 ④ 지방자치단체

5. 다음중 민사소송상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2점)

- 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
- ②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
- ③ 원칙적으로 대리인 행위로 인정되므로 널리 대리가 인정된다.
- ④ 민사소송상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는 임의대리인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정대리인으로 구별된다.

6. 다음중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2점)

- ① 송달사무는 수소법원의 사무관 등의 권한에 속한다.
- ②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 그 밖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 ③ 송달은 영수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유효한 송달이 되며,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다.
- ④ 송달받을 사람을 송달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는 없다.

7.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데, 다음에서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점)

- ① 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므로, 당사자는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증거조사기일, 화해기일, 판결선고기일도 ‘기일’의 한 종류이다.
- ③ ‘기일’은 관계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며,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 ④ 법원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기일의 통지를 기일통지서 송달방법 이외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8. 다음에서 ‘불변기간’이 아닌 것은? (2점)

- ① 항소기간
- ② 상고기간
- ③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 ④ 즉시항고기간

9.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2점)

- ① 변론준비절차에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이 있다.
- ②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실권효의 제재가 따른다.
- ③ 변론준비기일의 장소는 준비절차실이나 심문실과 같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실시한다.
- ④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0. 변론기일의 해태로 입게 되는 불리한 효과가 아닌 것은? (2점)

- ① 진술간주 ② 자백간주
③ 소취하간주 ④ 추후보완

11. 변론주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점)

- ①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②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③ 다툼있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12. 재판을 그 주체 및 성립절차에 의한 차이에 따라 구별한 것이 아닌 것은? (2점)

- ① 판결 ② 조정
③ 결정 ④ 명령

13. 통상 민사소송비용으로 인식되지 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법원이 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② 당사자가, 당사자나 대리인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숙박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비용
- ③ 사법부 예산중 법관의 인건비
- ④ 변호사 보수

14. 소송상대방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태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자백 ② 부인
③ 항변 ④ 침묵

15.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2점)

- ① 법원에 현저한 사실 ② 주요사실
③ 간접사실 ④ 경험법칙

16. 증거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점)

- ① 증거조사는 기일에 법정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검증, 감정, 조사의 촉탁 등도 변론기일전에 미리 시행할 수 있다.
- ③ 증거조사의 기일 및 장소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출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없다.

17. 동일한 내용을 가진 문서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분류하여 문서를 명명한 것으로서 **잘못** 설명한 것은? (2점)
- ① 일정한 내용을 담아 최초로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원본’이라 한다.
 - ② 원본에 갈음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공증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복본’이라 한다.
 - ③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본내용을 완전히 전사한 것으로서 권한있는 공무원이 ‘등본이다’ 라는 인증문을 부기한 것을 ‘등본’이라 한다.
 - ④ 원본중 일부분을 당해부분과 원본과의 관계를 밝히고 발췌한 것을 ‘초본’이라 한다.
18. 기관력의 시적범위(표준시)는 언제인가? (2점)
- ① 소장제출시 ②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 ③ 판결선고시 ④ 판결확정시
19. 우리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2점)
- 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②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③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
 - ④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20. 다음에서 민사소송법 제 451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아닌** 것은? (2점)
- 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②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③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④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21. 변론주의의 보완을 위한 진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소송관계에서 당사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의무이다.
 - ② ‘허위진술의 금지’와 ‘불완전한 진술의 금지’ 등을 말한다.
 - ③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진술을 다투어도 안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 ④ 우리 민사소송법상 문서성립부인에 대한 제재규정(법 제 363조), 거짓진술에 대한 제재(법 제 370조)도 진실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2. 다음에서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아닌** 것은? (3점)
- ① 확정된 종국판결
 - ② 가집행선고없는 미확정 판결
 - ③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 ④ 공증인이 스스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법정요건을 갖춘 집행증서
23. 소액사건에 관한 특칙으로서 **잘못** 설명한 것은? (3점)
- ① 소장에 의한 제소 이외에 당사자 쌍방의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
 - ②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소의 제기가 있으면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변론종결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4.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①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소의 취하는 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③ 소의 취하는 소송의 계속중 판결의 확정전이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 기관력의 객관적범위(물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3점)
-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관력이 있다.
 - ② 판결이유중에 판단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의 판단은 상계로써 대항한 수액의 한도내에서 기관력이 발생한다.
 - ③ 일부청구의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되지만, 일부분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송의 계속중 잔액을 후소로써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관력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례는 신소송물론에 따른 것이다.
26. 간접반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점)
- ① 간접증거 곧 간접사실 또는 보조사실을 입증하는 것
 - ② 법률상 추정사실을 반복시키고져 하는 증거를 입증하는 것
 - ③ 주요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함에 충분한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
 - ④ 인과관계의 증명을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입증하는 것
27. 민사소송법상 증인의 의무-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사절 등은 법원이 강제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②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16세 미만인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률상 선서의무가 없다.
 - ④ 일단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하면 신문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예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8. 다음에서 처분문서가 **아닌** 것은? (3점)
- ① 약속어음
 - ② 부동산매매계약서
 - ③ 영수증
 - ④ 유언장
29. 중복소송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3점)
- ①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가 제기된 경우이다.
 - ② 후소가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에 관하여 동일한 사건인 경우이다.
 - ③ 소송장애사유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④ 중복소송임을 간과하여 내린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다.

30.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로서 **틀린** 것은? (3점)
- ① 소송물로 주장된 권리관계에 대한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②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있다.
 - ④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31. 청구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잘못** 설명된 것은? (3점)
- ①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이 된다.
 - ③ 청구의 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바꾸는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청구변경의 모습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변경이 있다.
32. 반소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① 본소가 소송계속중이고 모든 심급에서 다 할 수 있다.
 - ②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③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④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33. 신소송물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소송물의 개념을 소송법 독자적 입장에서 구성한다.
 - ②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적 관점은 소송물의 요소가 될 수 없고, 청구취지에서 내용은 일정한 내용의 판결신청 또는 신청과 청구원인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서 소송물을 구성하려 한다.
 - ③ 현재의 우리 민사소송법은 신소송물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 ④ 신소송물론은 소송물의 범위를 넓혀서 피고의 방어권행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34.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①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법원에 관한 것, 당사자에 관한 것, 소송물에 관한 것, 그 외 특수한 소송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② 대부분의 소송요건은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 ③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소제기시이다.
 - ④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밝혀지면 더 이상 불안심리를 할 필요없이 종국판결로써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35.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①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고 사실관계는 그 대상이 아니다.
 - ②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증서의 내용에 의하여 직접 권리관계의 성립이나 존부가 증명되는 서면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다.
 - ③ 장래에 발생하는 권리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36. 우리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절차에 있어서의 심리원칙이 **아닌** 것은? (3점)
- ① 소송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
 - ②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구술로 시행하고 구술에 의한 자료만을 판결 기초로 고려하는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리주의는 보충적으로 활용한다.

- ③ 당사자의 변론 및 증거조사를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직접 실시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종결시까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를 취하고 있다.
3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점)
- ① 참가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판력을 받게 되는 제 3자가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이다.
 - ② 참가인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 또는 중지되지 않는다.
 - ③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상소할 수 없다.
 - ④ 판결의 대세효가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
38.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점)
- 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소송행위를 하고 판결을 받으며, 선정자는 그 소송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 ② 당사자의 선정은 소송상의 위임 및 신탁 계약이다.
 - ③ 선정은 다수결로 처리될 수 있다.
 - ④ 선정당사자도 소송대리권의 제한을 받는다.
39.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점)
- ①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반드시 여럿이 공동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반드시 공동피고로서 제소당하여야 하고 소송의 목적이 그들 모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것을 요하는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 ② 반드시 공동소송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 하더라도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일단 공동소송이 된 이상 그 판결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공동소송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 ③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중 1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고, 공동소송인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그 이익되는 여부를 막론하고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④ 변론 및 증거조사는 반드시 공통된 기일에 행하지 않아도 된다.
40.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중 맞지 **아니한** 것은? (3점)
- ① 압류등기전에 설정된 용익권, 담보권 등 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각에 의하여 소멸시키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담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주의를 소제주의(消除主義)라 한다.
 - ② 우리 실정법상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인도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권등은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을 갖게 된다.
 - ③ 압류채권자나 일반채권자 모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 하는데 우리 법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 ④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매각하고 그에도 부족하면 그 부동산의 매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잉여주의(剩餘主義)라 한다.

4 학년 3 교시

6. 소송물에 관한 이론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두면 우리 민사소송법제도와 운영방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학자들이 소송물이론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나 청구의 목적물이나 경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 ②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개별화된다.
- ③ 청구의 취지와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동일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다르면 소송물은 별개이다.
- ④ 소송물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과는 상관없이 당사자의 신청과 청구원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성된다.

7. 신소송물이론에 대하여는, 개별소송의 반복이라는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적절한 평가를 하여 억울한 패소를 방지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소송물이론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다음 중 신소송물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소송물은 청구의 기초보다 좁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
- ②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능한 모든 법률적 관점에서 포괄적 심리를 하여 청구 유무를 살같이 심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③ 신소송물이론중 일원설의 경우 기판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 ④ 동일사실관계의 분쟁을 한 차례의 소송으로써 일회적,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8. 증거의 종류로 '본증'과 '반증'을 이해함에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본증과 반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을 번복시키려 하는 증거는 '반증'이다.
- ② 본증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고, 반증이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의 입증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 ③ 본증은 법원이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 비하여, 반증은 법원에게 요증사실의 존재가 불확실하다는 심증만 주면 된다.
- ④ 반증에는 직접반증과 간접반증이 있다.

9. 다음에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간접사실
- ② 관습법 또는 오래전의 법규
- ③ 전문적인 경험법칙
- ④ 법원에 현저한 사실

10. 소송에서 변론할 때에는 자신의 진술이 재판상 자백이 되거나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 ②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한 경우라야 하는데,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자백이 된다.
- ③ 재판상의 자백은 구체적 사실뿐이다.
- ④ 진실에 반한 자백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11. 공해소송, 제소물책임소송, 의료과오 등에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등 실질적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음 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학설 또는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법률요건분류설
- ② 위험영역설
- ③ 개연성이론
- ④ 간접반증이론

12. 교통사고나 화재의 현장과 같이 곧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3. 요즈음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을 극력 회피하려는 이들이 많다. 현행제도상 증인의 출석과 진술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끝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14. 증인신문의 방식과 순서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신문이 끝난 후에라야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은 따로 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에서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④ 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다음에서 소송계속중의 소가 **아닌** 것은?

① 중간확인의 소 ② 반소
③ 소의 변경 ④ 항소 또는 상고

16. 국민이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려 할 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인지를 붙이게 하고 있다. 다음에서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금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② 항소할 때에는 그 불복범위에 관하여 제1심의 계산방식에 의한 금액보다 보다 1.5배, 상고심에서는 그보다 더 높아져서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특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다.
④ 소송비용부담재판은 그 부담자만을 정하고 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은 수소법원에서 하게 되는 독립된 사후절차로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17.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외분쟁해결방식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약칭한다. 우리 현행 제도상 ADR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알선행위
② 제소전 화해
③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지급명령

18.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당사자
②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③ 소제기의 배경
④ 청구의 취지와 원인

19.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백간주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소취하간주 - 당사자 양쪽이 동일심급의 동종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불출석함으로써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개월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상소의 취하'로 간주한다.

20.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자백(인정), 부인, 부지 등의 답변을 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어떻게 취급받게 되는가?

① 자백
② 부인
③ 부지
④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는다.

21. 증인신문에 관하여 설명한 사항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증인신문을 하기 위하여서는 기일전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법관이 대신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④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 기일전에 미리 법원보관금취급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증인신문시 반대부문은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반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반대신문의 범위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적극적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주신문과 반대신문 후에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주신문을 할 수 있다.
③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얻어진 주신문결과는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
④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범위 내에서 이를 탄핵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23. 우리 항소심의 구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① 복심주의
② 사후심주의
③ 속심주의
④ 위 셋 항목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24. 다음 중 사법보좌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등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5. 전속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이 재판의 적정 및 공평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따라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② 전속관할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니다.

③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속관할이 인정된다.

④ 전속관할의 규정이 있는 소에 대하여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6. 당사자확정의 표준에 관한 학설 중 ‘표시설’의 입장은?

① 소장에 성명, 주소, 직업, 또는 상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표시된 자를 당사자로 보는 입장이다.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실체법상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본다.

③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고자 하는 자를 당사자로 본다.

④ 소송절차에서 스스로 당사자로서 행동하거나 소송상 실제로 당사자로서 취급받는 자를 당사자로 정하려는 입장이다.

27. 다음에서 현행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선정당사자만이 소송당사자로서 자기명의로 소송행위를 하고 판결을 받으며, 선정자는 그 소송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③ 독립당사자참가로서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두고 있다.

28. 다음 중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① 행정청

② 자연인

③ 손해배상 또는 재산상속 관계 소송에서의 태아

④ 국가

29. 다음 중 소송법상 형성의 소가 **아닌** 것은?

① 재심의 소

② 채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③ 중재판정취소의 소

④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

30.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는 때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1. 소제기의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시효중단

② 법률상 기간준수

③ 소유권등 권리행사의 제한

④ 중복제소의 금지

32. 다음에서 불변기간이 **아닌** 것은?

① 항소기간

② 채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③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④ 제척·기피사유의 소명기간

33. 강제집행(금전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에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재산명시명령제도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외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은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선서거부를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④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그 이후에 수정할 수 없다.

34.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되는데, 배당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한데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 160조 제 1항(배당금액의 공탁)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은 제소전에 제기되어 판결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려는 제도로써, 민사집행법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이견을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가처분은 현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 중 가처분의 신청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다.

③ 가처분의 필요성이 일응 인정되면 법률상 다른 구제수단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나 채권자가 이미 즉시본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